



미술자료수집 김달진 관장

“다른 사람의 인생을 수집했더니 제 인생이 완성됐지요.
저에게 수집이 인생인 이유입니다.”

1



2



3



4



- 1 김달진 관장이 고등학교 시절 신문 기사를 스크랩했던 노트, 2 그 역시 우표 수집에 열중하던 시절이 있었다.
3 김달진 관장이 고등학교 2년생이던 1972년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 팸플릿과 직접 만든 전시 노트, 4 덕수궁 미술관에서 1952년 열린 벨기에 현대미술관 도록, 음차로 '백이외'라고 표기한 것이 재밌다.

PEOPLE
STORY 3

수집이 은퇴 없는 삶을 주다

출판사 대표 전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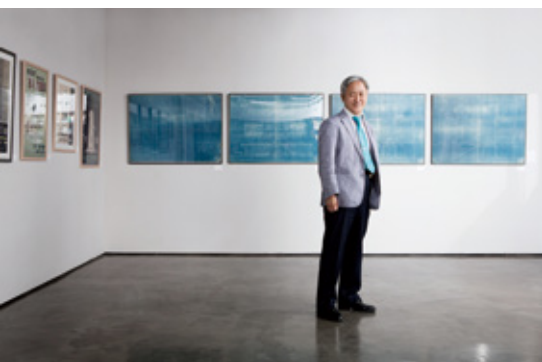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서를 주로 출판하는 한국교과서를 운영하는 전갑주 대표는 올해로 32년째 수집 인생을 살고 있다. 스물세 살 때, 당시 문교부 산하의 국정교과서라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예쁜 교과서를 한두 점 모은 것이 시작이다. 그 후 15년간 교과서를 모두 수집, 정리했다. 범위를 넓혀서 수집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생활상이 담긴 물건들은 3년 전에 20만 점을 넘어서면서 세는 것을 포기했다. 이 수집에 “큰 빌딩 한 채 값 이상 들었다”고 말하는 그가 특별히 근현대사가 담긴 물건들에 천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과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역사가 훼손되고 사라지는 가운데 ‘기억 창고’ 역할을 하는 이 물건을 누군가는 지켜야 하지 않나 생각했어요.” 취미로 시작한 수집은 오히려 전갑주 대표에게 소명 의식이란 걸 불어넣었다. 소명 의식으로 수집한 물건들은 그에게 정년 이후에도 은퇴 없는 삶을 꿈꾸도록 해준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 고속 성장의 DNA를 보여줄 체험마을을 만들고 DMZ에는 통일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 프로그램 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수집이 그에게 선사한 꿈이자 미래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는 그의 취미 활동에 가족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았나 하는 물음에 대한 전갑주 대표의 답은 역시 수집가답다. “애들 텃줄에, 처음 빠진 이, 개월별로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PEOPLE
STORY 4

인생을 수집하다

박물관장 김달진



미술 정보 포털인 ‘달진닷컴(www.daljin.com)’의 달진은 김달진 관장의 이름이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함께 운영 중인 그의 일은 미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어려서 우표부터 껌 종이까지 모았지만 그림에서 얻는 감흥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주부생활〉 같은 주부지에 모나리자나 피카소 그림 같은 게 보이면 스크랩을 할 정도였다. “1972년에 고3이었는데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근대미술연구전〉이란 획기적인 전시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서양 그림을 모았는데, 전시를 본 이후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 자료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인사동에 다니면서 수집을 시작했지요.” 미술 관련 스크랩북을 열 권씩 들고 다니며 서양미술사를 줄줄 꿰고 있던 고등학생은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을 시작으로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을 거쳤다. 그리고 김달진미술연구소로 독립한 지 15년째다. 그동안 〈서울아트가이드〉라는 잡지도 창간했고 박물관까지 설립했다. “살던 집의 마루가 자료 무게 때문에 휘어서 집주인에게 내쫓긴 적도 있어요.” 지하실 창고를 열어 자료를 보관했다가 습기가 차서 책을 버리기도 하고, 자료가 담긴 박스를 쌓고 그 위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기도 했다. 여전히 매일 현재진행형인 수집 인생. 오늘도 미술 관련 연구자들이 그의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자료를 보러 온다. 이 세상에서 김달진 관장만이 가진 자료다. 그는 ‘수집이 인생’이라고 했으니 사람들은 김달진을 보러 오는 셈이다.